



“남들은 내게 환경, 남들에겐 나도 환경”

박 수택 SBS 환경전문기자

☎ 02-2113-4157 ecopark@sbs.co.kr

〈필자약력〉

-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1985)
- 한국방송통신대 중어중문학과 졸업(2003), 환경보건학과 재학
- MBC 근무(1984~1991-사회부, 국제부)

- SBS 주일특파원(1991~1995), 나이트라인 앵커(1998~2000)
- SBS '물은 생명이다' 진행(2005~현재)
- 녹색인론인상(2007, 환경운동연합), 환경의 날 국민포장(2007)

환경 취재 현장을 누비다 보면 별별 사건을 다 접하게 된다. 지자체와 개발업체가 손잡고 골프장 건설을 추진 하면서 중요한 산줄기를 훼손하려는 사건이 있었다.

업체가 환경관서에 제출한 사전 환경성 검토서에는 산맥이 골프장 예정지를 빙 돌아서 지나간다고 되어 있다. 희한한 도면으로, 자연 환경 훼손을 걱정해 눈을 부릅뜨고 지킨 주민과 환경단체가 산맥 노선을 왜곡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역에선 묵살당할 뿐이었다. 제보를 접한 기자가 비행기를 타고 지방 현지로 파고들어 확인한 결과는 사실이었다. 지리, 환경 분야 전문가관을 일일이 찾아가 꼼꼼히 확인한 뒤에 문제를 낱알이 짙어 보 도했지만 사업체는 수궁하기는커녕 정정보도와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 진실이 바뀔 수는 없는 법이다. 중재위원회에 출석해 당당하게 맞섰다. '산맥 도면을 왜곡했다는 사실 보도를 도리어 허위 왜곡이라고 폄하당한 것은 깊은 유감이며, 업체가 제기하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고... 중재가 '불성립' 되고 난 지 며칠 뒤 지방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개발업체 간부) “정정보도 중재 건은 잘 안 됐지만... 사업 준비 시작한 지도 오래됐고, 더 끌면 저희가

곤란합니다. 서울에 갈 테니 저녁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자)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고, 사업자를 사석에서 만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됩니다. 저를 만나려하지 마시고 '사전환경성검토서' 요건대로 능선 축을 지키면서 사업하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십시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발을 앞세운 자연 환경 훼손 관행은 주변에 널려 있다. 환경은 개발 앞에 희생되기 일쑤다. 멀쩡한 농지 매워 산업단지 아파트 짓기에 바쁜 한편으로, 새로 농지를 만들겠다고 바다를 막아 새만금 갯벌을 죽였다. 서울 외곽 순환도로를 놓으면서 북한산국립공원 구역까지 밀고 들어가 긴 터널 구멍을 냈다. 깨끗한 공기와 물,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오래도록 지키기가 이 나라에선 어렵다. 오염되고 망가질 대로 버려졌다가 나중에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복원한다고 법석을 피우기 일쑤다. 환경을 아끼고 지킨다는 의식은 당초부터 희박한 탓이다. 우리네 의식주 생활을 돌아보면 새 것, 큰 것, 많은 것, 호화스런 것들 일색이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최소 두 세대 60년은 간다는 게 상식이다. 그런 아파트를 지은 지 고작

20년 남짓 만에 헐고 재건축하는 바람이 휘몰아치는 사회는 비정상도 이만저만 아니다. ‘축! 00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이런 펼침막이 곳곳에 내걸려 있다. 자기 집이 약해서 위험하니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고 ‘진단’ 받은 사실을 축하한다는 말이다.

진단용역비를 재건축 추진조합으로부터 받으니 ‘진단’ 인들 엄청하게 했으랴? 딱 떨어지는 ‘해외토픽’ 감이다.

제 나라 국민이 사는 아파트를 한 세대도 못 가게 짓는 이 나라 건설업체들 시공능력 탓인지, 아파트를 보급자리가 아니라 웃돈 얻어 팔아 이문 창기기 위한 수단으로 아는 천박한 시민의식 탓인지, 그 둘 다 해당하는 것인지...

멀쩡한 건물 부쉬대니 폐기물이 늘고, 다시 새로 지어야 하니 철근에 시멘트에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 집뿐만 아니라 뭐든 크고 번듯한 걸 좋아하고 많이 갖고 쓰다가 버리는 걸 아까와 하지 않는다. 음식쓰레기는 넘쳐나 처치 곤란한 지경이다.

비료나 가축사료를 만들어 봐도 질이 떨어져 재고만 늘어간다. 물, 전기, 에너지 허비 수준은 도를 넘는다.

공중목욕탕이나 스포츠센터 샤워장에서는 여전히 태연하게 물 틀어놓은 채 이를 닦거나 비누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자리를 뜨면서도 단추 눌러 끌 생각들을 하지 않는다.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를 18~20도로 유지하자고 정부와 환경단체가 아무리 호소해도 반팔 차림으로 지내는 걸 유복함의 척도로 아는 사람들 또한 여전하다.

언론에서 종종 언급하기도 하는 사안이다. 정작 언론사와 언론인, 정부 공직자들과 사회 유력층은 자기들 말처럼 알뜰하게 에너지 아끼고 겨울철 실내에서 내복 입고 지낼까 궁급하다. 서민들에게만 강요하는 자원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구호는 헛구호일 뿐이다. 솔선수범 여민동고 동락(與民同苦同樂)의 미덕이 아쉽다.

선거는 국민이 유권자로서 국가 사회의 향방을 결정하는 정치 행위다. 이번 대선에서는 유독 ‘경제’ 구호가 높았다. 경제가 중요한 건 사실이다. 다만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가 진정으로 ‘경제(經世濟民)’ 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자칫 재앙을 끼치기도 한다.

충남 태안에서 일어난 유조선 원유 유출 사고의 근원 은 석유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 체제에서 탐색하고 반성

해야 마땅하다. 일본에서 일어난 환경재앙 ‘미나마타 병’ 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일본 큐슈 중부 구마모토 현의 바닷가 소도시 미나마타의 경우 ‘치소’ 라는 화학 공장이 들어섰을 때 모두들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위해 경사라고 반겼다.

치소 공장에서 수은이 든 폐수를 바다로 흘려보내 생태계가 오염되고, 오염된 어패류를 먹고 주민들이 수은에 중독돼 중추신경이 마비돼 비참한 운명에 놓이게 된 ‘미나마타 병’ 사건은 그로부터 수 십 년이 지난 뒤였다.

미나마타시는 오랜 동안 미나마타 병의 고장이란 오명을 달고 수치를 겪고 난 끝에 ‘환경’ 을 테마로 내세워 부활과 진흥에 힘쓰고 있다.

주민들은 시 당국과 한 마음으로 뭉쳐 생활쓰레기를 무려 22가지로 나눠 분리 배출한다. 소각 매립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재활용 자원을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해서다. 처음에 다들 번거롭게 여겼지만 이젠 습관이 돼서 할 만하다고, 지구환경을 위해서 이 정도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민들은 입을 모은다. 환경재앙의 땅을 ‘환경수도’ 로 바꾸겠다는 결의가 엿보인다.

새해 많은 사람들이 각종 개발 공약과 정책 예고로 무지갯빛 꿈에 부풀어 있다. 정부운하 공약, 동서남해안발 전특별법에 대한 우려와 반대 여론은 찬성론 못지않게 높다. 개발 광풍에 강산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도록 버려둬선 안 된다. 토목, 건설 위주의 개발을 발전으로 착각해서도 안 된다.

지금 우리 세대가 누리는 경제적 풍요와 복지 수준은 미래 세대도 동등하게 누릴 수 있을 정도에 머물러야 마땅하다. 그계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선대가 물려준 자연과 환경을 이 세대에 과도한 개발과 자원 낭비 과소비로 훼손하는것은 슬프도록 무책임한 것이다. 다행히 태안 원유오염사고 현장으로 달려간 수십만의 자원봉사자들에게서 희망을 본다.

자연과 환경의 소중한, 훼손 오염의 대가를 몸으로 깨닫는 기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염·훼손도, 복원·보전도 결국 사람에게서 비롯된다.

사람에겐, 환경이, 환경이다.

환경에겐, 사람이 곧 환경이다.

나는 이웃과 후대와 지구에게 어떤 환경인가?